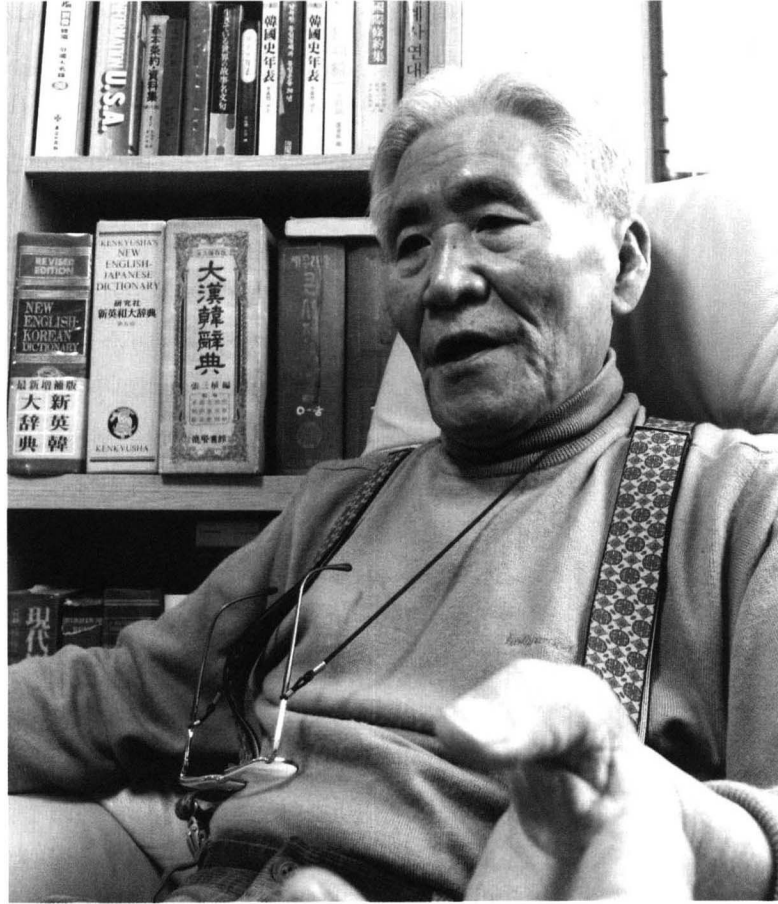


좋은 책이란, 보다 나은 가치의 삶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린 것

존재 자체가 시대의 증언이 되었던 인문서,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전환시대의 논리》 《이상과 우성》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대표하는 인문서들이다. 이 책들은 시대의 어둠이 개개인의 삶에 미로와 같은 혼란과 절망을 주었던 시기, 오롯한 빛으로 읽는 이의 눈을 밝히고 진실의 소리로 영혼을 일깨운 책들이다. 존재 자체가 시대의 증언이 되었던 책, 리영희 선생의 저서들은 인문서가 가져야 하는 시대적 함의를 고려할 때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항구성과 보편성을 갖춘 스테디셀러이다.



외 부와의 접촉을, 특히 '시국문제' 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절하는 리영희(78) 선생에게 '오직 책에 대한 이야기' 만 하기로 약속하고 인터뷰를 위한 '한 시간' 을 어렵게 허락받았다. 여든을 바라보는 선생은 근황을 묻는 기자에게 "이제 건강이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2000년 말 겪었던 뇌출혈의 영향으로 단어를 고르는 사이사이의 느린 침묵이 어눌한 말투를 만들었지만 그 느린 침묵조차 선생의 형형한 눈빛과 짙은 목소리 앞에서는 빛나는 여백일 뿐이었다.

선생의 대표작 《전환시대의 논리》는 1974년 창비에서 초판이 출간되었다. 전체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중국과 일본, 베트남을 위시한 아시아의 정치 역학 관계와 군사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밝히고 있다. '미국=정의' 라는 기존의 흑백논리를 뒤엎는 이 책의 '진실' 에 독자들은 충격 받았고, 국가보안법의 이적물로 규정되어 판매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원하는 독자들의 열기는 막을 수 없어, 출판사 측에서는 한동안 쇄수를 밝히지 않고 이 책을 찍어내기도 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쇄수는 2판 30쇄이지만 정확한 판매부수는 출판사 측에서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전환시대의 논리》는 지금도 매년 5,000부 정도가 꾸준



리영희

1929년 평안북도 삭주군 대관면에서 출생. 1957년 함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언론 활동을 시작한 뒤 1972년까지 조선일보 및 함동통신 외신부 부장을 지냈다. 1972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985년 일본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1987년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부교수를 역임했다. 1988년 한겨레신문사 비상임이사 및 논설교로, 1993년 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을 지냈다. 1995년 한양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했다. 저서에는 《전환시대의 논리》(1974) 《우상과 이성》(1977) 《분단을 넘어서》(1984) 《역설의 변증》(1987)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1994) 《스핑크스의 코》(1998) 《반세기의 신화》(1999) 등이 있다.

히 판매되고 있을 만큼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대통령을 맘 놓고 욕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도 이 책이 꾸준히 읽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선생의 생각은 어떨까.

“글쎄요, 지금까지 많이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초기 저작들에 대해 아직 수요가 있다면, 또는 그 책에서 여전히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직 유효하다면 그건 우리 사회가 책이 지향하는 그런 바람직한 사회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편협한 이데올로기로 남북의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 내 책의 내용이 가치를 가질 수 있겠지요.”

선생은 작년 9월 한길사에서 출간된 <리영희저작집> 출간기념회에서 50년간의 집필활동 마감을 선언했다. 그 자리에는 선생의 글을 의식의 자양분 삼아 성장한 많은 이들이 참석해 선생의 절필 선언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선생은 절필에 대해 “무엇보다 지적인 연구 활동이나 창작을 하기에는 건강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50년간 고군분투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나 나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족함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선생의 지난 시간은 그야말로 '고군분투'의 연속이었다. 선생은 1957년 함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언론 생활을 시작한 뒤 언제나 '진실'을 파헤치는 기사와 논평으로 정평이 나있었다. 1972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편하고 쉬운' 길로 들어선 듯했으나 기존의 통념을 전복하는 글들을 발표하는 것은 여전했다. 군부 독재의 탄압으로 해직과 복직은 다반사였고, 영어(圍圍)의 몸이 되기도 수차례였다. 펜 끝이 아니라 온몸과 정신으로 시대의 어둠을 밀어내는 글을 써온 선생이었기에 최근 쏟아지고 있는 논술 중심의, 연성화된 인문서들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인간의 정신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철학적 지식이 무의미해진 시대입니다. 지식은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화했습니다. 독서가 기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내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여기에 무슨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책이란 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가치의 삶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린 것인데, 그런 것이 도외시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장시간의 독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책 읽는 습관은 버리지 못한다는 선생의 책상 위에는 녹색 양장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놓여있었다. 이제 서가의 책들을 많이 추려냈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역시 '고전'이라는 선생에게 마지막으로 스테디셀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스테디셀러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나 지식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크게 보아서 한 시대를 다루면서도 시대의 제한적 조건에는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독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깨달음을 주는 큰 지식이나 사상을 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스테디셀러가 오늘 당장 나의 배를 불러주는 밥처럼 실용적이거나 실리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 사람들의 보다 높은 가치, 즉 상애·상조·상생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테디셀러의 미덕입니다.” **주필 박신우**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